2023 년 12 월 10 일 "(대강절 3 주) 자유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요 8:31-32)

오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주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먼저 내면에 숨겨진 소원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과 선함과 진실을 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바쁘고 조급하여 이런 소원들이 없는 듯 살아갑니다. 이런 조급함은 자신을 점점 메마르게 하지만 이것을 발견하여 고백하면 우리를 자유의 길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2] 나의 말에 거하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실제 관계와 대화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대로 행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의 성품의 약점을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주님의 칭찬을 받을 때, 조급함이 일으킨 불안, 두려움, 수치, 열등감을 몰아냅니다.

이 때 깊은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자유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갈라디아 교회가 빠진 함정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이 예수님 믿었지만 유업의 길(사랑의 길)을 버리고, 율법의 울타리로 돌아간 것을 슬퍼했습니다. 자유, 즉 사랑의 선택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들은 사랑을 선택하기보다, 영적 안전을 더 시급하게 느껴서 율법준수의 울타리를 재건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할지라도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 사랑의 큰 개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본성 상 사랑을 배우는 것이 미움을 배우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습니다. 정죄와 속박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최상의 인간 됨의 길입니다.

대강절을 통해 자유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나는 관계 속에서 무엇을 가장 원합니까? 사랑하는 관계에 비추어 말씀해 보세요.

2. 내가 정죄 없는 자유를 경험했다면,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내게 필요한 내적 자질이나 방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